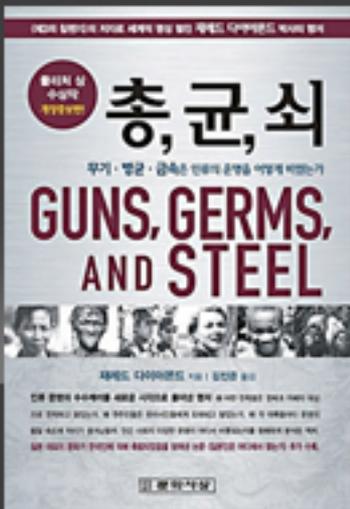


이동진의 빨간 책방

31/32

진행 이동진 PD 박미정 작가 허은실 기획 및 제작 왕인정, 허윤경

책, 임자를 만나다



총, 균, 쇠

왜 어떤 민족들은 다른 민족들의 정복과 지배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말았는가. 왜 각 대륙들마다 문명의 발달 속도에 차이가 생겨났는가. '인간 사회의 다양한 문명은 어디서 비롯되는가?'라는 의문을 명쾌하게 분석하여 1998년 풀리처상을 수상한 책. 진화생물학자인 재레드 다이아몬드는 총기와 병균과 금속이 역사에 미친 엄청난 영향에 대해 분석한다. 또한 말미에는 '일본인은 어디에서 왔는가'라는 논문을 실어 현대 일본인의 조상이 누구인지를 추적한다. 그는 이 논문에서 규모는 명확하지 않지만 한국인의 이주가 분명 현대 일본인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쪽에 손을 들어주고 있어 흥미롭게 읽힌다. [출처 / YES24]

에디터 통신

한 권의 책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꾼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자신의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여준 사람 중에는 독서광으로 이름 높은 사람들이 제법 많습니다. <한 권의 책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꾼다>는 안철수, 박웅현, 최재천, 처칠 등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학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가 롤 모델로 삼을 수 있는 동서고금의 인물 열네 명과 그들의 인생에 영향을 끼친 열네 권의 책을 소개합니다.





인생론 노트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미키 기요시라는 철학자가 쓴 철학에세이 <인생론 노트>입니다. 미키 기요시라는 철학자 자체가 독특한 삶을 살았는데요.

1897년에 태어난 그는 일본이 제국주의적인 팽창을 했을 때 군국주의에 저항해 투옥됐었죠. 그래서 전쟁이 끝나기 전에 옥중에서 세상을 마감한 철학자입니다. 이 책이 일본에서 무려 200만부나 돌파됐다고 해요. 담담하면서도 깊이가 있고 울림이 있는 에세이라는 점에서 읽어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니나 인터뷰

사막을 건너야 서른이 온다

Q. 작년부터 힐링 열풍이 대한민국을 휩쓸고 있는데요.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진정한 힐링이란 무엇인지요?

A. 저는 힐링이란 쓴 약을 먹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힐링은 치료로 번역해야지 위로로 번역해서는 안 됩니다.

Q. <사막을 건너야 서른이 온다> 제목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A. 사막을 건너는 것은 쓴 약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사막을 건너려면 계획이 있어야 하고 실제로 건너야하죠. 이렇게 우리 인생에도 계획과 실천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Q. 괜찮아지려면 꼭 해야 할 게 있어 라고 하셨는데, 한 가지만 든다면?

A. 소크라테스는 성찰하지 않는 삶은 가치가 없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는가, 무엇으로부터 가치와 의미를 찾을 수 있는가 끊임없이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Q. 어떻게 하면 자신을 제대로 관찰하고 들여다볼 수 있을까요?

A. 자신을 마치 제 3자가 보듯 물끄러미 봐야합니다. 사람은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죠? 인간에 대한 이해가 높으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산 책

해프기 전이가장어둡다

유쾌한 절망의 대가, 시오량의 죽음, 슬픔의 아포리즘

역사를 바꾼 100가지 실수

시대의 흐름을 뒤바꾼 어리석은 실수들

퍼스트 콘택트

먼 우주에서 이루어지는 생명탐사의 현장

GUN: 전쟁의 패러다임을 바꾼 총기 53선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주요 총기의 역사 총망라

포스트모던 영국소설의 세계

동시대 영국소설로 영국문학의 현주소를 읽다



이동진의 빨간 책방

디지털 매거진 6월호!

애플 앱스토어
 뉴스가판대를 통해
디지털 매거진 Vol.04 발행
 오감으로 전달되는
 다양한 콘텐츠의 매력을
 직접 느껴 보세요

Vol.04 다운로드 



매거진 미리보기

아이튠즈 뉴스가판대에서 이동진의 빨간 책방 VOL.04를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표지



책, 임자를 만나다



소리나는 책



2B가 그리러 갑니다



내가 산 책